

문학을 통한 복수

살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가정교사라면 우리 어머니한테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메리와 나는 어렸을 때 적어도 열두어 사람의 가정교사를 겪어보았어요. 그중 태반은 형편없는 밍상이었고 나머지는 주책바가지들이었어요. 모두가 꿈에 보는 마귀 같았어요. 그럴지요. 어머니?” 이 질문에 귀부인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한다. “가정교사 얘기는 하지도 마라. 가정교사란 말만 들어도 신경질이 난다. 그들의 무능과 변덕 때문에 난 정말 순교자의 고생을 치렀단다. 이제 그들과는 손을 끊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단다.”

알려져 있다시피, 제인 에어는 손필드 저택의 입주가정교사이다. 남자 주인공 로체스터의 초대를 받아 손필드에 온 그녀는 제인 에어를 앞에 두고 가정 교사를 비난한다. 제인 에어가 쓰였던 당시 영국 여성들의 삶은 단조롭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부유한 상속녀가 아니라면 그녀들은 수녀원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가정 교사가 되어야 했다. 지금처럼 멋진 독신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사한 장면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도 발견된다.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부유한 빙리 가문의 저택을 방문하게 된다. 빙리가 자매들은 마차도 타지 않고 진흙밭을 걸어 왔으며 엘리자베스를 비꼰다. 캐서린 백작 부인도 그녀의 형편을 무시한다. “딸이 네 명인데, 가정 교사도 없었다니, 흥, 그 집안 교육은 알만하겠군”이라고 말이다.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집안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다. 게다가 딸만 넷이니 그나마 아버지의 유산도 사촌 형제에게 넘겨야 할 판이다. 시집을 가지 못한다면 네 자매 모두 제인 에어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시각에선 뭐 저렇게 결혼에 매달리나 싶지만 당시로서는 별 다른 선택도 어려웠을 것이다.

살럿 브론테와 제인 오스틴은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여성들의 삶을 그려냈다. 빅토리아 시대 때 여성은 값비싼 악세사리 정도에 불과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교양이라곤 피아노 연주나 그림 그리기처럼 응접실용 여가 선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밍다는 말처럼 조금 더 부유하다고 가난한 여성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동년배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나빠 보인다.

하지만 지금 살아남은 것은 부유한 여자들의 비난이 아니라 가난했던 그 여성들의 “글”이다. 샬롯 브론테나 제인 오스틴의 글을 통해 권력과 부를 누렸던 당대의 부유한 여성들은 한낱 속물로 그려진다.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비난받는 것은 바로 그 이름 모를 귀부인들이지 제인이나 엘리자베스가 아니다. 부유한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 내내 그녀들을 멸시했지만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속물로 비난받고 있다. 결국 제인이나 샬롯이 그녀들의 멸시를 되갚는데 성공한 셈이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소설 속에서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삶을 완성해낸다. 물론 당시엔 소설에서나 가능한 환상이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가난한 딸부자집 둘째나 가정 교사가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는 힘들었을 듯 하다. 하지만她们은 소설 속에서라도 현실을 이겨내고자 했고 그들의 바람은 생물학적 생존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수많은 잉그램이나 캐서린 양은 생물 연대 너머로 사라졌지만 제인 오스틴과 샬롯 브론테의 소설 속에서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여전히 살아있다.

문학의 주인공들은 대개 현실에서 세속적 성공을 갖지 못한 낙오자들이다. 하지만 낙오자들이야말로 시대의 환부를 가장 아프레 드러낼 수 있는 흉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통해 자신을 낙오시킨 세상에 복수할 수도 있다. 문학을 통한 복수, 글은 때로 멋진 복수의 매체이다.

한때 칙릿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한 때 칙릿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젊은 여성들을 칙(Chick)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들에 관한 소설을 일컬어 칙릿이라 불렀던 것이다. 칙릿의 대표명사는 영화화되어 더욱 유명해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이다. 이 영화나 소설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칙릿의 주인공은 대개 사회 초년병들이다. 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여성이 되기 위해 좌충우돌한다.

칙릿이라 불렀던 소설들에는 달라진 여성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하나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대학생이 흔하다 하지만 평균적 여성형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 변화였다. 적어도 10여년전에는 「고양이를 부탁해」처럼 실업계 여고생 이야기가 평균적 여성형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사회적 성공으로 수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들은 스펙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으로 된 월급 통장을 원했

다. 재테크용 펀드와 자기 명의로 된 승용차를 갖는 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로 그려졌다. 한 마디로 세련되고 유능한 여성들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소설 속 20대 젊은 여성들은 상당히 다르게 묘사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21세기 초반 소설 속 주인공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해졌다는 것이다. 졸업과 함께 당당히 자기 일을 찾았던 언니들과 달리 그녀들은 불안한 미래에 시달린다. 과거 칙릿의 주인공들이 명품에 대한 욕망과 월급 사이에서 갈등했다면 지금 인물들은 A급 짝통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한다. 세상이 팍팍해졌고, 영화 속에서 보던 멋진 여성들의 자리는 현실엔 너무 적다. 알고 보니, 칙릿 속 여성 이미지들은 환상이었던 것이다.

대개의 평범한 20대 여성들은 자기 이름의 승용차나 집은커녕 직장조차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 한다. 명품백은 커녕 대출한 등록금을 갚는 것도 벅차다. 그러다보니 칙릿과 함께 떠올랐던 골드미스와 같은 화려한 용어들도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칙릿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환상 속에 있는 듯한 인물이었다.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외제차를 가진 남자 친구를 만나 짜릿한 연애를 하는 삶. 사실 이건 21세기 초반 평균적 여성의 삶이라기 보다 평균적 여성들의 판타지에 더 가깝다. 환상적으로 살기보다, 초라하고 스산하게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

최근 1975년생 젊은 여성 작가 김이설이 「환영」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녀의 소설을 읽다보면 우리가 칙릿에서 보았던 여자들이 얼마나 좁은 세계였던가를 생각하게 된다. 칙릿에서 보았던 여성들과 연령도 비슷하지만, 그녀들은 지독한 현실을 살고 있다. 칙릿에서는 분명 육체를 사용하고 여성성을 이용하라고 가르쳤지만 김이설의 소설에서는 여전히 이용당하고 유린당하는 신체를 보게 된다. 달라진 세상이라고 보았던 것들이 어찌면 다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가 더 짙어진다.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기엔 그들 각각의 삶이 너무도 다르다.

아마도 두 세계 모두가 다 현실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면 우리는 텔레비전과 영화가 보여주는 삶을 평균적인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대도시에서의 삶과 중소 도시에서의 삶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현실이라는 점이다. 젊은 여성의 표준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너무도 대도시, 상위계층 여성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간혹은 우리가 서울의 강남을 표준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 지 돌이켜 봐야 할 듯 싶다.